

Descartes 에 있어서의 神의 觀念

(試 論)

崔 明 官*

第 1 章 神觀의 問題와 그 意義

第 2 章 Descartes 의 神觀에 대한
여러가지 解釋

第 3 章 Descartes 自身의 말의 檢討

1. 『世界論』에서의 神에 관한 示唆
2. 『方法序說』의 問題點
3. 『省察』에 나타난 神의 特

第 1 章 神觀의 問題와 그 意義

人類는 일찍부터, 아마도 精神의 黎明期 以來로, 神을, 혹은 神들을 생각하여 왔다. 그 생각은 時代를 따라 또 環境을 따라 多樣하고 多彩로웠다. 人間은 自己의 存在의 弱함·相對性·一時性を 自覺하고서 強하고 絕對的이고 永遠한 存在를 想念하였다. 그런데 絕對라든가 永遠이라든가 하는 것은 본래 人間의 理解의 限界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本質로 하는 神에 대하여 人間은 갖가지 서로 다른 觀念을 품어 왔던 것이다. 혹은 特定한 自然力을 神으로 여기기도 하였고, 또 不可思議한 갖가지 能力을 神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 反面에는 人智의 發達과 함께 이런 神觀과 迷信的 宗教思想에 대한 冷徹한 批判이 일어나기도 했다. 神觀을 둘러싼 이와 같은 挑戰과 應戰을 통하여 宗教는 純化되고 人間精神은 深化하였다. 神觀의 發展과 人智의 進步 사이에는 대체로 正比例의 關係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神觀의 歷史는 그 자체 興味있는 문제이거나, 人類精神의 發達史에 있어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Descartes 의 神觀은, 그의 哲學體系 특히 自然學이 그러했듯이, 劃期的 意義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의 神觀은 그의 哲學體系를 떠나서 獨立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哲學體系 및 自然像에 不可缺한 柱礎가 되는 것이다. 그의 哲學의 方法이 劃期的인 것이었던 것처럼 그의 神觀 역시 劃期的이었다. 그리고 그 神觀은 그 哲學의 方法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Descartes 는 獨自的이고 아주 透徹한 方法을 통하여 神에게 接近하고 神을 發見하고 또 神의 現存을 證明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神의 現存의 證明에 있어서 明哲한 論陣을 펴, 이를

* 哲學科 教授

테면 決定打를 때렸다. 그런데 이 證明에 있어서 證明되는 神은 在來의 그리스도教會의 그것이 아닐 수 없었으나 사실은 그 現存이 證明되는 神은 이미 在來의 神의 性格과는 距離가 먼 것이기 쉬웠다. 혹은 距離가 먼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다. 이리하여 Descartes가 말하며 그 現存을 證明한다고 하는 神이 과연 傳統的인 그리스도教會의 神인지 哲學者 Descartes의 獨創的으로 생각해낸 抽象的 存在인지에 대하여 많은 論難이 있게 된 것이다.

Descartes는 自然學에 있어서 自己의 見解가 革新的인 것임을 自覺하고 있었다. 그러나 宗教에 관하여는 조심스럽게 保守主義의 立場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Descartes 自身이 새로운 革新的 神觀을 품고 있다고 自覺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神에 관하여 지극히 순수한 생각을 품었으며, 이와 같은 그의 순수한 神觀은 그의 새로운 世界觀과 함께 現代思想形成의 土臺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Descartes는 明哲하고 判明한 생각을 眞理의 基準으로 삼고, 神을 眞理의 源泉으로 보며, 또 神의 現存의 證明을 包含하는 모든 論議를 冷徹하게 展開시켜 나아가고 있지만, 워낙 神이 廣大無邊한 탓인지 그의 論議를 다 읽은 후에도 우리는 神의 分명한 觀念을 가질 수 없는 것같이 느끼는 때가 많다. 그러나 Descartes가 말하고 있는 神은 과연 過去의 無數한 사람들이 말한 神보다 더할 수 없이 單純하고 純粹하다. Descartes를 따라 神의 現存의 證明을 더 들어가면 아무도 그 證明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만큼 그 證明은 強力하다. 그리고 Descartes가 품었던 神의 觀念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그의 神의 現存의 證明은 과연 自明의이다. 거기엔 Descartes의 思想의 獨創的 性格과 힘찬 論理的 展開가 있다.

오늘날 20世紀 後半은 全世界에 걸쳐 國際政治의 不安한 均衡·社會的 混亂과 더불어 人類는 커다란 思想的 混迷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편이다. 數三年 以來 美國등 所謂 先進國에서 「神은 죽었다」고 하는 神學思潮가 크게 擡頭한 것도 비단 神學界만의 病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現代人의 思想이 全般的으로 하나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Descartes의 神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明哲·判明하게 하고 순수한 神觀을 把持하여 우리의 宗教로 하여금 迷信·獨善·腐敗에 빠지는 것을 막고 우리의 精神을 神의 完全·絶對의 美에 參與케 하는 데 一助가 되리라 믿는 바이다.

第 2 章 Descartes의 神觀에 대한 여러가지 解釋

Descartes 哲學의 여러 重要問題에 대하여는 無數한 解釋이 있어 왔다. 가령 cogito, ergo sum은 하나의 推理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直觀的 眞理이나 하는 따위의 문제가 많이 論

議되고 또 갖가지 解釋이 加해졌던 것이다. Descartes 에 있어서 神의 觀念이 傳統的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解釋이 있었다.

Crane Brinton 은 *Ideas and Men* 에서 Descartes 의 神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注目할만한 말을 하고 있다. “傳統에 대한 Descartes 의 無視가 아무리 당돌하다 할지라도, 이것(cogito, ergo sum)이 高遠한 哲學임은 명백하다. 眞正한 懷疑論者, 不快한 懷疑論者라면, 왜 「나는 됨을 홀린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가 아니냐고 물음직도 하다. 그러나 Descartes 는 이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로부터 앞으로 나아가 神에게로 곧장 올라가는 哲學體系를 세웠다. 그것은 좀 疎遠하고 非人格的인 神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Descartes 는 언젠가 한번 「내가 神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언제나 이 말 대신에 自然의 數學的 秩序란 말을 바꾸어 봐도 좋다」고 失言하였다. 가톨릭 教會가 이 哲學者는 그의 前日의 懷疑에서 스스로를 贖罪하였다고 보지 않았으며 또 教會가 그를 教會의 敵의 隊列에 속한다고 본 것은 하등 놀랄 것이 없는 일이다.”⁽¹⁾ 이 말은 西洋思想史에서의 Descartes 의 位置를 規定한 것으로서 대체로 妥當하다 할 수 있으나 거기엔 또한 문제삼을 것이 많다.

첫째로, 『省察』에서 Descartes 가 信仰없는 사람들에게는 神의 現存과 靈魂의 不滅에 관하여 自然的 理性에 의하여 證明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²⁾ 그가 대체로 哲學的 立場에서 神을 문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著作에서 우리는 神의 非人格化를 느끼기 쉽다. 그에게 있어서는 舊約聖書에서 보는 바와 같은 <震怒의 하나님>이나, 新約聖書에 드러나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性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神>이란 말이 傳統的 意味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Brinton 이 Descartes 의 神을 가리켜 「그것은 좀 疎遠하고 非人格的인 神」이라 한 것은 思想史의 全體의 흐름에서 볼 때, 옳은 일이지만, Descartes 는 意識的으로 神을 非人格化한 것은 아닌 줄 안다. 과연 Descartes 의 神이 전적으로 非人格的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Alexandre Koyré 는 일찌기 Brinton 의 解釋과는 正反對되는 見解를 披瀝하였다. 그는 *Essai sur l'idée de Dieu et es preuves de son existence chez Descartes*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省察』의 論證이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當到하는 神의 觀念은 그리스도 教會의 傳統的 觀念이다.⁽³⁾… Descartes 가 教會의 權威 앞에 참으로 겸허하게 머리를 숙일 때, 그는 眞心인 것이다.”⁽⁴⁾

(1) Crane Brinton, *Ideas and Men*; 拙譯『西洋思想史』p. 512~513.

(2) Lettre à messieurs les doyens et docteurs de la sacrée faculté de théologie de Paris, *Méditations (Oeuvres et Lettres, André Bridoux, ed., p. 257; 앞으로는 Oeuvres 라고 約하기로 함.*

(3) Alexandre Koyré, *Essai sur l'idée de Dieu et les preuves de son existence chez Descartes*, p. 2~3; 앞으로 *Essai* 라고 約하기로 함.

(4) *Ibid.*, p. 4.

Descartes의 神의 觀念은 그리스도敎 神學의 傳統的 觀念이다.”(5) Descartes가 神의 現存을 證明한다고 하며, 또 자기의 證明이 敎會의 權威를 背景으로 가지고 있는 파리大學 神學部에 의하여 가장 妥當한 것으로서 認定되기를 원한 터에 그가 말하는 神이 敎會에서 말하는 神과 다르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일이다. 새로운 神을 만들어 놓고서 그 現存을 證明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Koyré가 말하는 것, 즉 Descartes의 神의 觀念이 그리스도敎會의 그것과 다름 없다고 하는 것은 우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證明한다고 하고 展開된 理論을 살펴볼 때, 그 神의 觀念은 傳統的인 것과는 距離가 있고, 17世紀의 새로운 世界像과 結付된 새로운 性質을 띠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Koyré도 차츰 자기의 見解를 修正하고 있다. 無限에 관하여 言及하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概念을 分析하면, 우리는 Descartes에게서 神의 傳統的 觀念이 약간 變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아무튼 Descartes가 생각하는 神의 觀念이 傳統的이라고 前提하고서 출발한 Koyré도 Descartes의 神의 特有한 紐앙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Henri Gouhier도 Descartes가 敎會의 神觀을 받아들이면서 출발했으나, Descartes에게서 그것이 變貌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敎理問答書의 神은 그저 善良한 사람(信者)들만의 神은 아니다. 라 플라슈學院의 옛 學生(Descartes를 가리킴)도 하나의 (神에 대한) 意見을 가지고 있으나 그 意見은 神學的으로 洗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을 Descartes가 惡意있고 有能한 靈을 아주 善하고 眞理의 源泉인 神에 對立시킬 때 잘 볼 수 있다. 全能하며, 創造者이며, 善하며, 眞理의 源泉, 이런 것들이 Descartes가 그 文化로부터 얻는 神에 대한 <意見>이다. 이것은 그가 感覺을 媒介로 하여, 즉 感覺을 통하여(per sensus), 다시 말하면 聽覺을 통하여, 그의 父母와 先生들로부터 받아들인 概念들의 一部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意見>은 <코기토>(의 自覺이 있는) 후에, 神의 本性의 문제가 다시는 提起되지 않게 시리 神의 現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變貌하고 있다.”(7) Descartes는 『省察』의 첫째 省察에서 “그런데 나는 오래 前부터 내 精神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내가 創造되고 또 내가 現在와 같이 產出된 神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意見을 가지고 있다.”(8) 라고 말하고 있다. Gouhier는 이러한 Descartes의 意見, 즉 傳統的 觀念을 받아들이는 意見이 cogito의 體驗後 變貌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傳統的 神의 觀念을 哲學的 思索의 展開에 있어서의 神의 觀念에 對立시키고 있는 것이다.

Roger Lefèvre는 *La métaphysique de Descartes* (1966)에서 “그(Descartes)는 항상 그의 어

(5) *Ibid.*, p. 5.

(6) *Ibid.*, p. 10.

(7) Henri Gouhier, *La pensée métaphysique de Descartes*, 1962, p. 187.

(8) *Méditations (Oeuvres)*, p. 270).

린 時節의 宗教를 崇尚했으며 ; 教理에 대한 尊敬, 教會에 대한 服從, 無神論者에 대한 敵意, 天國에 이르려는 希求를 確認했으며 ; 자기의 自然學이 Aristoteles의 自然學보다 聖書에 더욱 一致한다는 것, 科學的 眞理와 그리스도敎의 眞理는 同一한 神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敵對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을 公言했다”(9)고 말하고 있으나, 한편 *Le criticisme de Descartes* (1958)에서는 “Descartes의 神은 確實히 獨創的인 것이다. 그는 絕對的으로, 〈自由〉이며, 〈完全〉이다.”(10)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崇尚했다〉, 〈確認했다〉, 〈公言했다〉고 해서 받드시 Descartes가 傳統的 神觀을 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에 引用한 두 가지 글은 一見 서로 다른 解釋인 듯 하면서 어디까지나 둘 다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Descartes에게 있어서는 神觀이 一層 純粹하게 되고 洗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escartes는 자기가 새로운 神觀을 提示한다고는 결코 自負하거나 公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神의 現存을 證明하는 그의 論議를 읽어 갈 때, 神에 대하여 Descartes와 같이 매우 순수하고 세련된 神의 觀念을 품을 수 있다.

以上에 말한 것 외에도 많은 學者가 Descartes의 神觀에 대하여 論하며 言及하고 있다. Maxime Leroy는 『데카르트. 假面을 쓴 哲學者』(*Descartes. Le philosophe au masque*, 1922)에서 Descartes는 根底에 있어 理神論者, 심지어는 無神論者가 아니었던가고 묻고 있다. Leroy가 “Descartes는 正義와 理性의 哲學者다. 즉 그는 地上의 權利를 要求하는 哲學者다.”(11)라고 말한 것은 어느 意味에서 一理 있는 말이다. 그러나 Descartes自身은 결코 自己自身을 理神論者 내지 無神論者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Koyré가 “Descartes가 教會의 權威 앞에 아주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Descartes의 神의 觀念은 그리스도敎 神學의 傳統的인 觀念이다.”(12)라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옳다. 그러나 한편 思想史의 흐름을 볼 때 Descartes로부터 出發한 Spinoza가 Deus sive Natura라 하는 汎神論的 見解를 품게 되고, 또한 뒤이어 理神論과 無神論이 神學的·合理的 思考의 發展과 함께 擡頭된 것을 보면 Leroy의 見解도 納得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Descartes는 無神論者로서의 自覺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神觀을 깊이 드러다볼 때 人格性이 사라져 있고 宇宙維持의 순수한 原理로서 把握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테면 그의 世界觀이 無意識的으로 傳統的인 神觀에서 떠났고 이런 意味에서 無神論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9) Roger Lefèvre, *La métaphysique de Descartes*, 1966, p. 71.

(10) Roger Lefèvre, *Le criticisme de Descartes*, 1958, p. 251.

(11) Maxime Leroy, *Descartes. Le philosophe au masque*, Paris, 1929 (Georges Duhamel, *Descartes, Maître à penser*에서 再引用).

(12) *Essai*, p. 4.

Blaise Pascal 이 “無用하고 不確實한 Descartes”(13)라고 말하고, 다시 “나는 Descartes 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될 수만 있으면 그의 全哲學에서 神 없이 지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世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는 神으로 하여금 한 손가락을 쓰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엔 神이 必要치 않다.”(14)라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것은 Pascal 이 Descartes 를 理神論者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연 Descartes 가 그의 全哲學에서 神 없이 지내려고 했는가는 저으기 의심된다. Descartes 의 글을 읽으면 그의 全哲學이 神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萬物이 神에 의하여 創造되고 維持될 뿐만 아니라, 또한 眞理의 認識도 오로지 神에 의하여 保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神은 Descartes 哲學의 基礎요 中樞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15)을 찾는 Pascal 에게는 이 哲學者의 神이 끝내 못마땅했던 것이다.

以上을 要約컨대, Descartes 가 품었던 神의 觀念에 관하여 갖가지 相異한 解釋이 있고, 따라서 Descartes 에 있어서의 神의 觀念의 문제가 매우 微妙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여러 解釋을 대충 이만큼 훑어 보고 이제는 Descartes 자신이 그의 여러 著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檢討하기로 한다.

第 3 章 Descartes 自身の 말의 檢討

1. 『世界論』에서의 神에 관한 示唆

Descartes 가 Aristoteles 의 自然學을 代替할 자기의 새로운 自然學의 全體를 論述한 『世界論』(Traité du monde)은 그 原稿가 1633年 7月에는 대체로 完了되었다. 그러나 마침 그때 Galilei 의 『天文學對話』가 로마 敎皇廳에 의하여는 押收되고 宗教裁判에서 有罪로 判決되었음을 알았다. 『世界論』에서 Descartes 는 Galileo Galilei 와 마찬가지로 Copernikus 의 地動說을 옳다고 보는 見解를 취한 바 있었다. 그래서 그는 『世界論』의 出版을 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그 一部가 遺稿 속에서 發見되어 1664年에 出版되었다. 이런 事情 때문에 Descartes 는 『世界論』에서 자기의 世界 記述이 하나의 寓話라고 前提하고 있다. (16) 그러나 그 記述은 너무나 眞摯하고 극히 科學的이요, 새로운 現代의 世界觀 樹立의 주춧돌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世界論』에서 言及되고 있는 神은 Descartes 의 神觀을 문제삼음에 있어 決定的인 位置를 차

(13) Pascal, *Pensées*(Lafuma, 297).

(14) Pascal, *Pensées*, (Lafuma, 1001).

(15) *Ibid.*, (Lafuma, 737).

(16) *Traité du Monde*, 第 5章.

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Descartes의 모든 思想이 그의 哲學體系 속에서 密接한 內的 聯關을 가지고 있듯이, 『世界論』에서 自然의 運動·秩序·保存에 관련되어 문제된 神은 『方法序說』이나 『省察』의 神을 示唆하며 또 깊은 同一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世界論』에서 Descartes는 Scola 哲學에 反對하여 無限空間을 넘어서 認定한다. 그리고 이 無限한 空間 속에 神은 物質을 創造했는데, 自然은 다름아닌 物質이요, 物質의 本性은 어디까지나 延長이며, 空虛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世界 속에서 모든 物質은 自然의 法則을 따라 運動하는 것이다. 神은 不變하며 神의 作用은 變化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不動性을 간직한 神이 自然에 法則을 주어 모든 物質을 움직이게 하는 까닭에, 全物質은 創造된 때 最初의 瞬間에 있어서 가졌던 量과 同一한 量을 가지고서 同一한 量의 運動을 하되, 어디까지나 神이 課한 法則을 따라서 運動을 계속하는 것이다. 要컨대 神은 그 不動한 本性을 따라 世界 안에 創造한 一定量의 物質을 항상 保有하며, 또 그 物質의 粒子로 하여금 항상 同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世界에는 장차 奇蹟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Descarte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神은 장래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奇蹟을 행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요, 知性的 實體나 理性的 精神이 自然이라 하는 것의 日常의 過程을 어느 모로나 뒤흔들지 않으리라...”(17)

Descartes가 出版을 斷念했던 『世界論』의 중요한 原理의 一部를 그후 心境의 變化로 간추려 記錄한 바 있는 『方法序說』에서도 우리는 그의 機械論的 世界像과 거기 관련된 神觀을 엿볼 수 있다. 『世界論』의 原理를 要約하여 『方法序說』第5部에서 Descarte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神은 自然 속에 어떤 法則을 세웠고, 또 그 觀念을 우리의 精神 속에 確固하게 아로 세웠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反省한다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 혹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그 法則들이 正確히 지켜지고 있음을 의심할 수가 없다.”(18) 또 “나는 自然의 法則들이 어떤 것인가를 밝혔다; 그리고 神의 無限한 完全性 위에만 내 論據를 두었다.”(19) 라고 말하고 다시 더 나아가 “神이 지금 世界를 保有하고 있는 作用은 그가 世界를 創造했던 때의 作用과 全적으로 同一하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一般的으로 神學者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意見이다.”(20)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중의 마지막 引用文中 世界의 創造와 世界의 保存을 同一視하는 思想에 관하여는 다시 論하겠거니와, 하여간 이 『方法序說』中の 말들은 『世界論』의 思想에 呼應하는 것이다. 여기에 共通으로 나타나는 神은 要컨대 世界의 秩序를 樹立하고 保有하는 者이다.

(17) *Ibid.*, 7.(18) *Discours de la methode*, Cinquieme partie (*Oeuvres*, p. 153~154).(19) *Ibid.*, p. 155.(20) *Ibid.*, p. 156.

나중에 『省察』에서는 神이 自然의 秩序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마는, 『世界論』이나 『方法序說』에서는 순전히 機械的으로 움직이는 世界 내지 自然에 관련하여 그 法則의 樹立者 혹은 그 秩序의 維持者로서 神이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論議에서는 神의 人格性이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 <自然의 秩序 자체>라고 잘라 말하고 있지 않는 限에서 Descartes 가 말하는 神이 神學者들의 神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世界論』에 나타난 神이나 『方法序說』第 5 部에 나타난 神은 理神論的 性格을 띠고 있는 듯싶기도 하고 또 Descartes 의 말에 이 理神論的 性格을 보여주는 것(“……만일 神이 어딘가 想像的 空間 속에 새로운 世界를 構成하기에 충분한 物質을 創造하고, 또 神이 이 物質의 갖가지 部分을 갖가지로 無秩序하게 뒤틀어서 詩人이 想像하는 바와 같은 混亂한 混沌狀態를 만들고, 그리고는 神이 自然에 그저 通常的 協力(concours ordinaire)만을 베풀어, 그가 定한 法則들을 따라서 自然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20)”)이 있기는 하나, 이 모든 것이 神의 全能함에 內包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Descartes 가 神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深刻한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Descartes 의 神觀이 『世界論』이나 『方法序說』에 관한 限 하등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Descartes 의 神觀이 深刻하게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方法序說』 및 『省察』에서 神의 現存의 證明에 關聯되어 Descartes 가 神의 屬性에 關하여 한 말이라 하겠다.

2. 『方法序說』의 問題點

Descartes 는 『方法序說』 第 4 部에서 cogito, ergo sum 의 原理와, <나>의 本質은 오직 <생각한다>는 데에 있음과, 「아주 明哲하고 아주 判明하게 理解하는 것들은 모두 참되다」고 하는 一般的 規則을 確立하고나서 神의 現存(existence)의 證明에 言及하고 있다. 『方法序說』의 이 部分은 Descartes 가 和蘭에 移住한 初期에 행한 形而上學的 考察을 要約한 것이요, 나중에 『省察』에서 자세히 叙述된 것이다. <나>를 순전히 <精神>으로만 把握하고 이 精神으로서의 <나> 속에 있는 神의 觀念에서 그 現存을 證明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거기에는 神에게서 모든 難스러운 것이 除去된 순수한 性質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Descartes 가 말하는 神은 우선 그의 말대로 <나보다 完全한 어떤 것>(quelque chose de plus parfait que je n'étais)⁽²²⁾이다. 나는 의심하는 存在인 까닭에,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은 不完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나는 完全하지 못함을 自覺하는 것인데, 나는 必然的으로 나 自身보다 完全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存在인 것이다. 이리하여 <나보다 完全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Descartes 에게 있어서 바로 神에게로의 第一歩다.

(21) *Ibid.*, p. 154~155.

(22) *Ibid.*, p. 148.

이 〈나보다 完全한 어떤 것〉을 『方法序說』 第4部에서는 곧 이어 〈참으로 더 完全한 어떤 存在者〉(quelque nature qui fût en effet plus parfaite)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存在者〉라 옮긴 것은 佛語原文에 nature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본래 〈自然〉이라든가, 〈本性〉이라든가로 새겨지는 것이요, 여기서도 곧장 〈自然〉이라 하기는 거북하지만 〈本性〉이라 옮겨도 좋다고 여겨지는 말이다. 이 말 속에도 Descartes가 생각하는 神의 本性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Descartes가 『方法序說』 第4部에서 神의 屬性에 言及하는 데서 말한 것처럼, 神은 어떤 物體가 아니요, 또한 合成된 것이 아니다. 神이 〈存在者〉라 할 때 이 存在者는 物體가 아니고 完全성을 지닌 어떤 本性이요, 오히려 精神的인 性格을 띤 어떤 것, 나아가서는 어떤 精神的인 性格 自體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Koyré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妥當하다고 하겠다. “Descartes의 神은, 그가 完全하고 따라서 가장 優越하며 모든 制限에서 自由로운 까닭에 無限하고 完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無限성은 이를테면 그의 本質의 가장 深遠한 階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神은 無限하지 않고 오히려 無限性 自體요, 또 여러 군데에서 Descartes의 解明은 無限性 속에 神의 完全성의 根據까지도 찾아내고 있는 듯싶다.”(23)

Descartes에게 있어서 神은 無限성이요 또한 完全성이다. 그런데 神은 또한 合成된 것이 아니요, 單純성을 本質로 하는 까닭에 無限성과 完全성을 하나로 하여 되어 있는 精神的 存在 내지 本性이다. Descartes는 神을 〈存在〉(Être)란 말로도 表現하고 있는데, 가령 〈내 存在보다 더 完全한 存在〉라든가, 〈完全한 存在〉라고 말하고 있다.(24) 그리고 神의 觀念이 無에서 나올 리 없고 또 神은 모든 完全성을 지니고 있으며, 神은 다른 어떤 것에도 依存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依存성은 缺陷 내지 不完全성의 하나인 때문인 것이다.

Descartes에 의하건대, 神의 觀念은, 내 本性보다 더 完全한, 그리고 내가 觀念을 形成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完全성을 그 自體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本性(nature=存在者)에 의하여 내 속에 심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 本性이 다름아닌 神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있고 다른 아무 것에도 依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神 속에 있는 모든 完全성을 지니며 無限하며 永遠하며 不動하며 全知하며 全能할 터이다. 그러나 내가 依存的 存在임을 自明의 事實이다. 따라서 내가 依存하는 더욱 完全한 存在가 없을 수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이 完全한 存在에 依存하며 또 이 存在 없이는 한 瞬間도 存續할 수 없다.

위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神은 物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神은 合成되어 있지도 않다. Descartes는, 〈叡智의 本性〉(la nature intelligente)이 物體的 本性和 아주 다르며, 合成이란

(23) *Essai*, p. 13.

(24) *Oeuvres*, p. 149, 150.

것이 이미 依存성을 드러내며 依存은 하나의 不完全性인 까닭에 神은 이 두가지 本性的 合成 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神은 순전히 〈叡智的 本性〉일 따름이다. 이러한 神에 대한 認識은 〈構像〉(imagination)에 의하여 얻어질 수 없다.⁽²⁵⁾ 構像이란 본래 物質的 事物에 대한 認識樣式인 때문이다. 이리하여 物質的 事物에 대한 認識도 궁극적으로 참된 것이 되려면 悟性이 介入하여야만 하지만, 神에 대한 認識은 全적으로 悟性의 힘으로만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Descartes 에 있어서 神과 靈魂 내지 精神의 類似性이 엿보이며, 또한 Descartes 의 神이 Platon 의 idea 와도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인다.

여기 관련하여, Descartes 는 虛偽 및 不完全성을 無에 結付시키고 眞理 및 完全성을 神에 結付시키면서 神을 無에 對立시키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虛偽 혹은 不完全性이……神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眞理 혹은 完全성이 無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에 못지 않게 矛盾임이 분명하다.”⁽²⁶⁾ 이 귀결에서 조금 더 나아가 Descartes 는 “神은 全적으로 完全하고 全적으로 참되시다.”⁽²⁷⁾ 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귀결을 Haldane 과 Ross 의 英譯은 “神은 全적으로 完全성이며 眞理다.”라고 하는 抽象名詞로 옮기고 있다. 여기에도 Descartes 의 神이 非人格的인 存在 내지 性品으로 解釋될 수 있는 점이 있음직도 하다.

그러나 『方法序說』 第 5 部와 第 6 部에는 神과 自然 내지 自然法則을 區別하는 表現이 나타나 있다. 가령 “神이 自然 속에 세운 어떤 法則”⁽²⁸⁾이라든가, “神은 自然에다가 그저 그의 通常的인 協力을 주었다.”⁽²⁹⁾라든가 “神만이 世界를 創造하였다.”⁽³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自然의 法則들이 어떤 것인가를 밝혔다. 그리고 내 推理를 神의 無限한 完全성들 外에는 다른 어떤 原理 위에다가도 基礎두지 않으면서, 나는……절사 神이 世界들을 創造했다 하더라도 (위에 말한) 自然의 法則들이 지켜지지 않는 世界를 創造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³¹⁾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世界의 自然法則과 神의 不可分離性, 나아가서는 同一性까지도 엿보인다고 하겠다. 여기에 다시 한번 神의 非人格的 性格이 드러난다.

그러나 神의 本성을 物質的인 것과 峻別하고 〈叡智的 本性〉과 同一視한 것은 神의 人格的 性格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以上과 같이 穿鑿해볼 때, Descartes 가 생각하는 神이 傳統的이고 宗教에서 말하고 생각

(25) *Ibid.*, p. 151.

(26) *Ibid.*, p. 152.

(27) *Ibid.*, p. 153.

(28) *Ibid.*, p. 153~154.

(29) *Ibid.*, p. 154.

(30) *Ibid.*, p. 170.

(31) *Ibid.*, p. 155.

하는 神과 더불어 距離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Descartes가 새로운 神觀을 내놓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Leroy처럼 그를 理神論者 내지 無神論者라고 斷定할 수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Descartes는 『方法序說』에서 〈神〉(Dieu)이란 말을 32회 사용하고 있는데 그 神이 在來의 傳統的인 神觀에서 떠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몇 군데서 Descartes는 宗教的 歸依의 意思를 表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方法序說』第3部に 敍述된 道德律의 셋째 格律은 “神의 恩寵에 의하여 내가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져온 宗教를 한결같이 지킨다”(32)는 것이요, 또 “宗教의 諸眞理는 내 信念 속에서 항상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33)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나는 國王의 宗教를 信奉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 乳母의 宗教를 信奉합니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方法序說』에서 要約된 바 Descartes가 말하는 神은 물론 새로운 神觀을 드러내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 時代의 自然科學의 發展에 刺戟되어 그가 품게 된 無限하고 秩序整然한 自然에 대한 생각을 背景으로 하고, 이 無限한 世界의 創造者요 이 世界의 整然한 秩序의 樹立者요 또 우리가 明哲하고 判明하게 생각하는 限眞理를 認識케 하는 眞理의 源泉 내지 保證者로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神이 이 世界, 이 秩序, 이 眞理와 따로 떨어져 있는 存在가 아니고, 이 自然(내지는 本性) 自體, 秩序 自體, 眞理 自體라고 생각될 만큼 純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根據가 드러나 있기도 하다.

요컨대, 『方法序說』의 神은 異端的인 神은 아니고, 傳統的인 神觀을 哲學적으로 純粹하게 하고 深化한 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省察』에 나타난 神의 特性

『省察』은, 그 意圖가 파리大學 神學部の 認可를 얻어 모든 學院에서 神의 現存의 證明이 가장 妥當한 것으로서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속에서 새로운 神觀이 表明되거나 주장될 리 없는 것이었다. 『省察』속에서 쓰이고 있는 〈神〉이란 말은 모두 傳統的인 意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Descartes가 理解한다고 하는 神도 傳統的인 言辭로 規定되고 있다. 가령, 〈永遠하고, 無限하고, 不動하며, 全知하며, 全能하며, 自己 밖에 있는 모든 것의 普遍的 創造者인 神〉(34)이라 規定하기도 하고, 또 “神이란 名稱으로 내가 理解하는 것은 無限하고, 永遠하고, 不動하며, 獨立해 있고, 全知하며, 全能하며, 나 自身과(나 自身 以外에도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創造한 實體다.”(35)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32) *Ibid.*, p. 141.

(33) *Ibid.*, p. 144.

(34) *Ibid.*, p. 289.

(35) *Ibid.*, p. 294.

規定이나 말은 省察 1에서 “하지만 오래 천부터 나는 내 마음 속에 하나의 意見,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지금과 같이 創造한 神이 있다는 意見을 가져 왔다.”(36)고 한 말에 副應하는 것으로서 Descartes가 말하는 神이 教會에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져 온 神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省察 3의 末尾에서 Descartes가 “잠간 머물러 이 아주 完全한 神을 觀想하고 그 놀라운 屬性들을 찬찬히 헤아리고 이 廣大한 光明의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을, 이를테면 거기 眩惑된 내 精神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凝視하고 讚歎하고 崇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神的 莊嚴에 대한 이 觀想 속에만 來世의 最高의 淨福이 있음을 우리는 信仰에 의하여 믿는 터이지만, 또한 그와 같이 지금도 그러한 觀想에 의하여——실사 훨씬 不完全한 것일 망정——現世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最大의 滿足을 누릴 수 있겠기 때문이다”(37)라고 말한 것은 宗教人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가 在來의 信仰에 깊이 沈潛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公式的인 表現에도 불구하고 『省察』에서도 역시 神에 대한 觀想이 深化되고 神의 觀念이 純化되고 있다. 『省察』은 무엇보다도 먼저, 疑心할 수 있는 것을 문제삼고 確實한 것을 探求하는 일에서 出發하고 있어서, 神이 欺瞞者일 수 있느냐 하는 深刻한 문제마저 提示되고 결국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結論에 到達하고 있다. 이러한 省察의 어간에서 神은 〈眞理의 源泉〉이라고 示唆되기도 하고, (38)〈모든 明哲하고 判명한 知識(conception)의 作者〉라고 指摘되고 있기도 하다. (39) 그리고 Descartes에 의하면, 欺瞞의 힘은 奸邪한 힘이기는 하지만, 欺瞞하려는 欲望은 惡意나 缺陷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神 속에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Descartes는 神과 眞理를 密接하게 結付시키고 있다. 그래서 Koyré 같은 이는 “Descartes의 神은 우리에게 몇몇 明哲하고 判명한 觀念을 주며, 만일 우리가 이 觀念에 충실하여 過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眞理를 發見할 수 있게 해준다. Descartes의 神은 眞理로 充滿한 神(a truthful God)이다...”(40)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神의 完全性 속에 眞理의 源泉도 있고 참된 知識의 根源도 있다고 하면, 神과 眞理를 특별히 밀접하게 結付시켰다고 해서 그 神이 새로운 神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完全성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無限性 속에서(이 無限性 속에는 또한 單純性이 하

(36) *Ibid.*, p. 270.

(37) *Ibid.*, p. 300.

(38) *Ibid.*, p. 272.

(39) *Ibid.*, p. 309.

(40) A. Koyré, *From the Closed World to the Infinite Universe*, p. 100.

나가 되어 있다.) 神의 本性을 보는 Descartes 의 思想은 그 時代의 새로운 宇宙觀을 背景으로 하여 形成된 것으로서 神觀의 深化와 純化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省察』의 讀者에의 序言에서 Descartes 는 “우리는, 우리의 精神이 有限한 것이지만 神은 理解를 넘어서는 無限한 存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41)라고 말하므로써 神을 無限者로서 規定하는 그의 哲學을 展開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Descartes 가 <無限>(infinitum)이란 말을 神에게 돌리고 <無限界>(indefinitum)란 말을 世界 내지 物質的 宇宙에 돌리고 있지만, 르네상스 以來 퍼지게 된 새로운 宇宙像에 있어서 이미 宇宙는 無限한 것으로 把握되었고, Descartes 역시 宇宙를 사실은 無限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만 神을 物質的 宇宙와 區別하기 위하여 구차스레 <無限>과 <無限界>를 구별했다는 解釋도 있다.

어떻든 이 無限하고 完全한 存在(Être)에 관하여 『省察』에서는 그 現存(existence)이 證明되고 있다. 이 證明을 위하여 Descartes 는 자기의 精神 以外の 다른 어떤 것도 살필 必要가 없었다. 우리의 精神 속에는 神의 觀念이 있다. 우리는 有限하되, 無限者인 神의 觀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存在다. 나는 어느 意味에서 神과 無의 中間者다.(42) 神은 더할 나위 없이 完全하여 거것이 그로부터 나올 수 없지만, 過誤는 결국 전적으로 否定이요 神에 對立하는 無에 根據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神과 無의 中間에 있는 내 精神 속에 神의 觀念이 있다. Descartes 는 이 觀念을 추궁하였다. 이 觀念은 가장 明哲·判明하다. 그리고 이 觀念은 나에게 生得的인 것이요, 또 내 精神 속에서 最大·最善의 것에 대한 觀念이다. 그런데 이 觀念의 原因인 神 自身이 그 結果인 觀念 속에 있는 完全性이나 無限性보다 못한 完全性이나 無限性을 內包할 리 없다.

Descartes 는 나아가 <나>라고 하는 存在가 어디서 왔을까고 묻고 그 創造者로서 神이 없을 수 없다고 論證하고 있다. 그리고 時間의 本性을 따지면서 모든 瞬間이 獨立해 있다고 主張하며 創造와 保存에는 똑같은 힘이 必要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의 創造와 保存이 神에게 依存함을 밝힌다. 時間에 대한 Descartes 의 思想은 자못 獨特하며, “現在는 過去를 질머지고 未來를 떠금고 있다”고 한 Leibniz 의 時間觀과 다르며, 그리하여 異論의 餘地가 있지만, 그런대로 어느 觀點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든간에 나의 存在의 原因으로서 神을 생각하면서 Descartes 는 神도 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une chose qui pense)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즉 생각한다는 점에 神과 나의 깊은 同一性을 Descartes 가 생각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이것은 Descartes 의 神이 非人格化되어 있다는 생각에 反對되는 것으로서, 차라리 神의 擬人視 내지 人格化라 하겠다. 하지만 物質을 延長으로서 規定한 Descartes 에게 있

(41) Haldane and Ross, trans.,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Vol. 1, p. 138.

(42) *Oeuvres*, p. 302.

어서 物質과 劃然히 區別되는 實體로서 神을 定立하는 立場에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아울러 Descartes 가 “神에게는 한갓 潛勢的인 것이란 전혀 없으며, 神은 現勢的으로 無限하며, 따라서 神은 그의 至高의 完全성에 아무것도 添加할 수 없다.”(43) 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神이 Aristoteles 의 『形而上學』의 神과 恰似한 점이 있어 보인다.

單純性이라고 하는 神의 屬性도 여기에 곁들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Descartes 는 “神 속에 있는 모든 것의 統一性, 單純性 즉 不可分離性은 神 속에 있다고 내가 知覺하는 主要한 完全性들 가운데 하나다.”(44)라고 말하고 있다. Koyré 는 “神의 單純性의 理說은 中世哲學에 있어서 傳統的인 것이다.”(45)라고 말하고 있지만, 神의 單純性 역시 神이 物質이 아니고 순수한 精神이라고 把握될 때에만 成立되는 것이요, Descartes 의 神觀의 중요한 特性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神에 대하여 깊고 순수한 觀念을 가지면서도 傳統的인 神의 觀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省察』의 理論展開 속에서도 16, 17 世紀의 새로운 宇宙觀의 影響을 받은 神觀의 變貌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省察』의 概要에서 Descartes 는 “모든 實體는 一般으로——즉 神에 의하여 創造되지 않고서는 存在할 수 없는 모든 것은——그것들의 本質上 不滅이요, 神이 그것들에게 그의 協力을 拒否하므로써 그것들을 無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限存在하기를 그칠 수 없다”(46)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에네르기 恒存의 法則과 비슷한 世界像이란 印象을 준다. 그리고 省察 6에서 “自然이 나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얼마간의 眞理를 內包하고 있음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全體的으로 생각된 自然은 神 自體, 혹은 創造된 것들 속에 神이 세운 秩序와 配列(disposition) 以外の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나는 理解하는 때문이다.”(47)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自然이 곧 神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것은 Spinoza 가 汎神論으로 나아가게 된 실마리가 되었음직한 思想이요, 또 Descartes 의 神이 非人格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根據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Descartes 가 神과 物質을 劃然히 區別한 만큼 物質的 自然이나 世界가 곧 神일 수는 없는 일이요, 또 Descartes 가 Spinoza 처럼 natura naturans 즉 能產的 自然을 神으로 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위에 引用한 말에 表現된 Descartes 의 思想은 思想史에 있어서 중요한 位置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Descartes 는 『省察』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論駁에 대하여 答함에 있어, ① 神은 自己 自身

(43) *Ibid.*, p. 296.

(44) *Ibid.*, p. 298.

(45) *Essai*, p. 42.

(46) *Oeuvres*, p. 263.

(47) *Ibid.*, p. 326.

의 原因임을 確認하고, (48) ② <아주 完全한 物體的 存在>란 語不成說임을 指摘하는 동시에 神의 觀念은 오직 悟性(entendement)에 의해서만 知覺됨을 밝히고, (49) ③ 神 속에는 物體的인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50) ④ 생각한다 고 하는 놀랍고 매우 完全한 德이 神 속에 있음을 우리가 認知하는 터인데, 훨씬 不完全하게나마 우리들 속에도 있다고 거듭 말하여, 神의 本性이 物體的인 것보다도 精神的 作用에 있음을 示唆하고, (51) ⑤ 神을 <우리가 知覺(concevoir)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完全한 것>이란 在來의 概念을 再確認하고, (52) ⑥ 神을 온전히 아는 자는 누구나 神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慈愛心을 가지게 된다고 매우 宗教的인 發言을 하고, (53) ⑦ 神은 廣大無邊하여 그에게 依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바, 存在(subsiste)하는 모든 것만 아니라, 秩序도 法則도 善이나 眞理의 根據도 그에게 依存한다고 하여 神을 讚美하고 있다. (54)

以上을 要約컨대, 『省察』에 나타난 神은 無限하고 最高로 完全한 存在이면서 자기 속에 그 모든 完全성을 하나로 統一하여 간직하고 있으며, 延長 있는 物體처럼 分割될 수는 없는, 그리고 생각하는 存在요, 또한 自然의 秩序 自體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存在다. 생각하는 存在인 神이 어떻게 自然의 秩序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듯싶다. 그러나 神은 無에 對立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생각하는 나의 創造者가 있어야 함은 Descartes가 緻密하게 論證한 바요, 또 世界와 宇宙가 廣大無邊하면서 秩序 整然하게 運行하며, 또 그 存在가 궁극적으로 善而美한 것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創造한 더욱 完全한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存在가 온갖 完全성을 지닌 最高의 存在者요 이 自然의 秩序의 樹立者라고 해서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自然의 秩序 自體가 神인가 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Descartes는 결국 이 世界가 無가 아님을 定立하고 存在의 궁극적인 原因 내지 힘을 神으로 把握하므로써 그것이 곧 自然 내지 自然의 秩序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Descartes에서와 같은 神의 觀念과 世界像을 받아들일 때 神의 現存(existence)은 당연히 成立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8) *Ibid.*, p. 349(Premières Réponses).

(49) *Ibid.*, p. 374 (Secondes Réponses).

(50) *Ibid.*, p. 413 (Troisièmes Réponses).

(51) *Ibid.*, p. 495 (Cinquièmes Réponses).

(52) *Ibid.*, p. 514.

(53) *Ibid.*, p. 533 (Sixièmes réponses).

(54) *Ibid.*, p. 538.